

■ 주요 경기 결과

에콰도르·잉글랜드 16강행



잉글랜드 피터 크라우치(왼쪽)가 15일 독일 뉘른베르크 프랑켄슈타디온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 B조 조별리그 2차전 잉글랜드-트리니다드 토바고간 경기에서 후반 38분 주장 데이비드 벅컴이 페널티지역 오른쪽 밖에서 찰러준 크로스를 솟구쳐 올라 헤딩슛으로 연결, 짜릿한 선제골을 만들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스웨덴, 16강 진출 불씨 살려

■ 스웨덴-파라과이 (1-0)

북유럽의 강호 스웨덴이 파라과이에 힘겹게 승리를 거두고 16강 진출을 위한 불씨를 살려냈다.

스웨덴은 16일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후반 44분 터진 프레데리크 옴베리의 천금같은 헤딩골로 파라과이에 1-0 승리를 거뒀다.

1차전에서 트리니다드토바고와 비긴 스웨덴은 1승1무를 기록, 승점 4점으로 조 2위로 올라섰다. 파라과이는 2패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

스웨덴은 이날 승리로 고비는 넘겼으나 16강 진출 여부를 잉글랜드와 치르는 3차전으로 넘겨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잉글랜드는 이미 16강 티켓을 손에 넣었지만 지난 38년간 월드컵을 포함해 10차례 A매치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스웨덴을 상대로 자존심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이 잉글랜드에 지고 트리니다드토바고가 파라과이를 꺾는다면 동틀이 돼 골 득실차로 조 2위를 가리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크라우치 선제골, 제라드 쐐기골

■ 잉글랜드-트리니다드토바고 (2-0)

잉글랜드가 월드컵 본선에 처음 출전한 트리니다드토바고에 승리를 거두고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잉글랜드는 16일 뉘른베르크 프랑켄슈타디온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 B조 조별리그 2차전 트리니다드토바고와 경기에서 2-0으로 승리를 거뒀다.

잉글랜드는 파라과이와의 1차전 승리에 이어 2승을 거두면서 승점 6점을 확보, 스웨덴과 남은 경기에서 상관없이 16강 티켓을 확보했다.

경기 초반부터 트리니다드에 파상 공세를 펼치고도 골문을 열지 못해 답답해하던 '축구 종가' 잉글랜드를 무기력증에서 깨낸 주역은 '로봇춤'의 장신 공격수 피터 크라우치였다. 후반 38분 잉글랜드의 주장 데이비드 벅컴이 페널티지역 오른쪽 밖에서 찰러준 크로스를 크라우치가 솟구쳐 올라 헤딩슛으로 연결, 짜릿한 선제골을 만들어 냈다.

경기 내내 트리니다드 진영을 헤집고 다녔던 잉글랜드의 미드필더 스티븐 제라드도 한 몫을 했다. 제라드는 인저리타임에 들어가자마자 페널티 정면 밖에서 수비수 한 명을 제친 뒤 골키퍼가 손을 쓰지도 못한 강한 왼발 중거리슛을 성공시켜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잉글랜드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방어했던 트리니다드는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연속 골을 허용, 1무1패로 16강 진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본선 진출 두번째만에 첫 16강 올라

■ 에콰도르-코스타리카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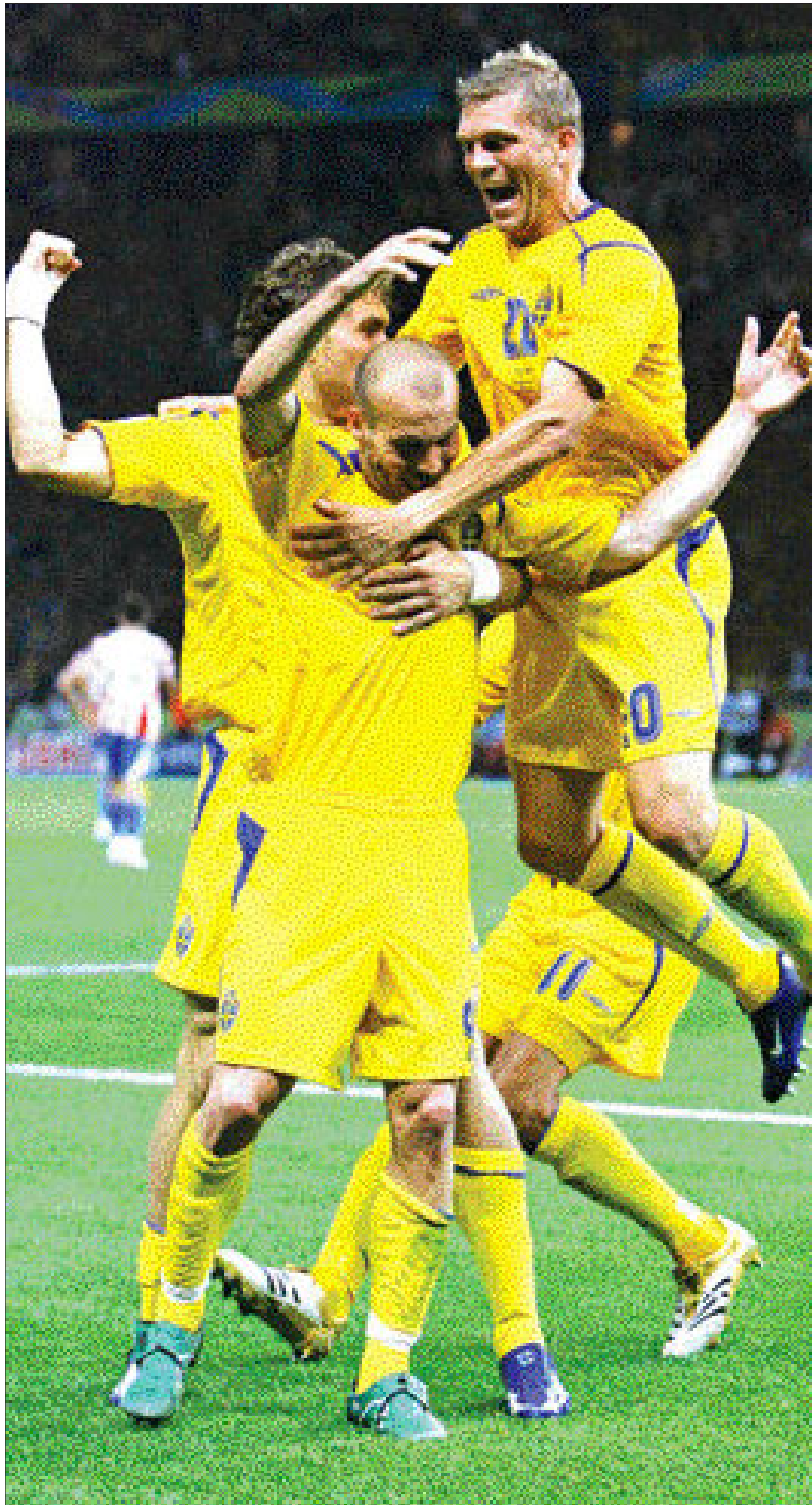
남미의 신흥 강호 에콰도르가 코스타리카를 꺾고 월드컵 출전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올랐다.

에콰도르는 15일 함부르크 FIFA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친 끝에 코스타리카에 3-0으로

로 완승을 거뒀다. 1차전에서 폴란드를 2-0으로 완파했던 에콰도르는 2승을 거둬 승점 6점을 확보, 나란히 2패를 떠안은 코스타리카와 폴란드를 제치고 독일(2승)과 함께 A조에서 16강행 티켓을 확보했다.

에콰도르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 이어 본선 진출 두번째만에 16강에 진출하는 저력을 과시, 남의 독일과의 경기에서 여유있게 조 1위 다툼을 하게 됐다.

특히 테노리오는 폴란드와의 1차전과 마찬가지로 헤딩 결승골을 성공시켜 16강 티켓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파라과이에 극적인 승리를 거둔 스웨덴의 옴베리(맨앞)와 팀 동료인 알베코(오른쪽), 라르손(왼쪽 뒤), 엘만데르 선수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주요 경기 전망

2006 독일월드컵 F조 조별리그에서 탈락 위기에 몰린 일본이 18일 1패를 당한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16강 진출 불씨를 살리기 위한 벼랑 끝 대결을 벌인다. 배수의 진을 친 일본이 후추전 역전패의 악몽을 떨쳐내며 16강을 향한 한 가닥 희망을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탈락의 고배를 들지 주목된다.

또 '죽음의 조' E조에서 나란히 개막전 승리를 챙긴 '동유럽의 복병' 체코와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는 2차전 상대인 가나와 미국을 맞아 16강행 굳히기에 나선다.

로스치키(체코) VS 에시엔(가나) 대결

▲E조 체코-가나(18일 오전 1시·헬름)=확관한 득점포를 선보인 체코의 공격수 토마시 로시치키(도르트문트)와 가나의 스트라이커 마이클 에시엔(첼시)의 맞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로스치키는 앞선 미국전에서 연속골을 작렬하며 3-0 승리를 이끌어낸 해결사. 공격형 미드필더인 로시치키는 특히 최장신(202cm)의 주전 공격수 안 폴레르(도르트문트)의 부상으로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미국전 선제골의 주인공인 폴레르는 허벅지 부상으로 남은 조별리그 경기에서 벤치 신세를 지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위인 체코가 로시치키와 그라운드를 지휘하는 미드필더 파벨 네드베트(유벤투스)와 호흡을 맞춰 공격을 주도한다면 가나를 2승 제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가나에는 첼시에서 뛰어난 공격력을 과시했던 에시엔이 있다. 에시엔은 이탈리아전에서 상대 빗장수비를 뚫지 못해 0-2 완패를 빚미를 제

공, 체코의 수비진을 허물고 실추된 명예 회복과 귀중한 1승을 올린다는 각오다.

伊 "美 꺾고 16강 결정지을 터"

▲E조 이탈리아-미국(18일 오전 4시·카우저살라우데르)=전통의 강호 이탈리아가 여세를 몰아 미국을 제물로 16강 굳히기에 도전한다. 통산 4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이탈리아는 2002 한·일 월드컵 때 한국에 1-2로 달미를 잡았던 아쉬움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앞서 가나전에서 특유의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순간적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집중 공세를 퍼붓는 경기 운영으로 첫 단추를 잘 꿰 상승세를 살려 2승째를 수확하겠다는 심산이다. 개

막전 때 득점하지 못했던 포워드 투카 토티(피오렌티나)와 델 피에로(유벤투스)가 투톱으로 출격, 미국의 문전을 위협한다.

개막전에서 체코에 0-3 참패를 안은 미국은 배수의 진을 쳤다.

드리블과 골 감각이 뛰어난 랜던 도너번(LA 갤럭시)과 용수철 점프로 헤딩슛에 능한 브라이언 맥브라이드(풀럼)가 체코전 패배의 부진을 털고 골 사냥에 나선다.

일본 "16강 불씨 반드시 살리겠다"

▲F조 일본-크로아티아(18일 오후 10시·뉘른베르크)=양 팀 모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나란히

개막전 패배를 안아 2차전에서도 진다면 16강행 희망이 날아가기 때문에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지쿠 감독이 이끄는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플레이 메이커로 꼽히는 나카타 히데토시(볼턴)와 나카무라 스케(셀틱), 오노 신지(페예노르트)가 주축인 탄탄한 미드필더진의 강한 압박으로 크로아티아의 수비진을 허물겠다는 복안이다.

주전 공격수인 다카하라 나오히로(함부르크)와 야나기사와 아쓰시(메시나)도 1차전에서 침묵했던 득점포 가동을 버리고 있다.

크로아티아도 장신 스트라이커 다도 프르소(레인저스)를 앞세워 세밀한 중앙 침투를 통해 일본 수비진을 뚫고 첫 승 수확에 나선다.

특히 우승 후보인 브라질과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를 벌여야 하는 일본과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아픔을 맛봤던 크로아티아는 2차전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일본-크로아티아, 내일 벼랑 끝 한판 승부